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 03131 서울특별시 중로구 율곡로 64 Tel 02.765.3011-3

12 2017 | Vol. 550

처음 만난 겨울왕국(初めて出会った冬の王国) Photo : KIM HEYJIN

일한정상 전화회담

11월 29일 오후 5시 15분부터 약 15분간,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가졌으며 개요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어서 기쁘고, 북한의 도발이 심각해 일본 국민들도 걱정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오늘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났으며 미사일은 4,000km를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고도의 궤도에서 약 50분간 비행해, ICBM급 사거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일한 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핵·미사일 발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일한 및 일한미도 결속해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특히 중국의 역할 확대가 중요하다는 점, 일한미가 긴밀히 협력하며 더 강한 압박을 위해 확실히 조정해 갈 것, 안보리에서 일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갈 것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

일한미 외교차관협의

10월 18일, 서울에서 일한미 외교차관협회가 개최되었다. 일본에서는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사무차관, 미국에서는 존·J·설리번 국무부 부장관, 한국에서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참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3국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 차관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북 압박을 최대한 높임으로써 북한 스스로가 정책을 바꾸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일한미 3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추가적인 역할을 요구함에 있어, 구체적인 대응 및 최근에 채택된 유엔안보리결의 제2375호를 포함한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추구와 더불어, 북한을 외교·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노력, 안보 면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서도 솔직한 논의가 있었다. 나아가,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일한미 공동의 과제이며 계속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의견이 일치했다.

또, 세 차관은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협력, 특히 해양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으며, 대북 정책의 공조에 그치지 않고 일한미 3국의 협력을 더욱 진전시켜 가기로 했다.

2017년도 추계 외국인 서훈

11월 3일(목), 일본 정부는 '2017년도 추계 외국인 서훈' 수상자를 발표했으며, 주한일본대사관 관내에서는 이종윤 씨와 이용근 씨가 수상했다.

이종윤(李鐘允)

전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전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무이사, 전 산업자원부 무역정책 자문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

■공로 개요: 일본과 한국 간의 경제적 관계 강화에 기여 ■훈장: 욱일중수장(旭日中綬章)

이용근(李容根)

전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직원

■공로 개요: 일본국 재외공관 활동에 기여 ■훈장: 서보단광장(瑞宝单光章)



제18회 일한문화교류기금상 수여

일한문화교류기금상 시상식이 지난 9월 19일(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상은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이 학술·문화 분야 교류를 통해 일한 양국간의 우호친선에 기여한 한국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99년 창설했으며, 원칙적으로 매년 1회 9월에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심규선(沈揆先)

■소속 및 직위: 동아일보사 고문

■수상이유: 동아일보 도쿄특파원 도쿄지국장을 역임, 논설위원 시절에는 일한관계에 관한 많은 칼럼을 집필했다. 일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과제를 극복하자고 호소해 왔다. 2016년부터 '화해·치유 재단' 이사를 맡은 외에도 '한일축제한마당' 실행위원, '한일포럼' 운영위원 등 많은 일한관련단체 참가를 통해 일한관계 발전을 위해 공헌했다.

김혜영(金惠英)

■소속 및 직위: KBS 라디오 국제방송(KBS Radio World) 일본어방송 프로듀서 겸 아나운서

■수상이유: KBS(한국방송) 국제방송에서 30년에 걸쳐 일본어방송을 담당. 일본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와 인식으로 프로그램 제작에 임하여, 일본 청취자의 한국 이해를 심화시켰다. 동시에 일본 청취자들과 교류행사 등을 통해 한국의 일본 이해 증진에도 공헌했다. 또 2002년부터 담당하는 '금요좌담회'는 일한 양국 언론인들이 시사문제를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으로, 양국 미디어의 시점 차이를 통해 진정한 이해를 지향하는 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국제사진교류협회

■소속 및 직위: 김영백 회장(한국사진작가협회 추천 작가)

■수상이유: 고베에서 열린 국제사진가협회(IPA) 전시회와 1998년 나가사키현 쓰시마지청(對馬支庁) 주최 일한교류 사진전 참가를 계기로, 부산과 쓰시마에서 교대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 작품 출전뿐만 아니라, 전시회와 동시에 대규모 교류단을 상호 파견하여, 사진을 통한 일한 양국 이해에도 공헌했다. 2013년 이후에는 미국, 중국 단체도 참가하여, 교류 규모를 확대하는 등 일한 양국간 우호를 위해 크게 기여했다.



인천우호교류공원, 바람의 언덕'에서는 아름다운 '교류의 바다'를 조망하며 당시를 돌이켜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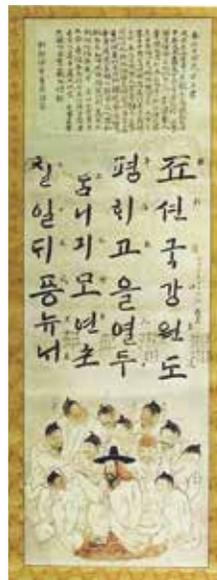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며 - 우호 교류의 바다를 건너, 우리 마음이 전해지기를

사계절, 매력이 넘치는 돗토리현

돗토리현(鳥取県)은 교토(京都), 오사카(大阪)에서 북서쪽으로 약 150km떨어진, 인구 약 60만 명의 현이다. 현 내에는 일본 최대급의 '돗토리 사구(鳥取砂丘)'와 모래 조각을 전시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미술관인 '돗토리 사구·모래 미술관', 그리고 겨울 스포츠를 비롯해 등산, 캠핑, 자전거, 골프 등 일 년 내내 다양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다이센(大山) 산 및 미사사 온천(三朝温泉), 가이케 온천(皆生温泉) 등의 온천지가 있어 계절에 따른 음식과 문화,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지역이다.

또 '명탐정 코난'의 작가인 아오야마 고쇼(青山剛昌) 선생, '계게계의 기타로'의 작가인 고(故) 미즈키 시게루(水木しげる) 선생 등 저명한 만화가의 고향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작품을 테마로 형성된 상점가와 작가의 성장 과정 및 작품이 탄생하기까지의 비화, 제작 풍경 등을 엿볼 수 있는 전시관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다.

한국과의 깊은 인연을 오늘날에 전하는 마음 따뜻해지는 에피소드



일본이 쇄국 정책을 펴던 1819년, 강원도 울진군(현재의 경상북도 울진군)의 상선이 폭풍으로 돗토리현 앞바다에서 조난을 당하자, 당시 돗토리번(鳥取藩)은 나가사키(長崎)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었다. 이 사실은 1991년 돗토리현립 도서관에서 발견된 족자 '표류 조선인 그림(漂流朝鮮人之圖)'에 그려진 감사 편지로 인해 알려졌다. 당시 돗토리현은 이를 '일한 교류의 뿌리'로 규정하고, 상선의

1991년 돗토리현립도서관에서 발견된 족자 '표류 조선인 그림'

선장이었던 안의기 씨의 후손을 찾아 나섰다. 결과적으로 안 씨 가문의 후손을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돗토리현이 다시 한 번 일한 교류의 초석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1918년, 다시 한 번 한국의 화물선이 돗토리현 앞바다에서 조난을 당했다. 이때, 제주도 출신 선원 1명이 숨을 거두자 주민들이 공양탑을 세웠는데,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다. 올 2월에는 100주기 행사가 거행되었다.

그리고 1963년에는 거제도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떠내려왔다. 선원은 전원 구조되어, 선박 수리가 끝날 때까지 약 1개월간 지역 주민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았으며, 그 후 무사히 부산항으로 귀환했다고 한다.

이들 사례는 일한 양국 간의 외교적 줄다리기가 이해 관계를 초월해, 마음이 통하는 지역 간 교류의 근간으로서, 현대 돗토리현의 국제교류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전해진 고토우라정(琴浦町)에는 '일한우호 교류공원·바람의 언덕'이 구축되어 '우호 교류의 바다'를 조망하며 당시를 돌이켜 볼 수 있다.

‘일한 지역 간 교류의 모델 케이스’로 불리는 강원도와의 교류
돗토리현은 1993년 강원도와 농업 분야에서 교류를 시작해, 이듬해인 1994년 ‘우호제후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했다.

청소년, 문화 예술, 스포츠, 복지, 환경, 경제, 관광 등 폭넓은 분야에 걸친 교류 사업은 연간 30건이 넘으며, 지금은 양적·질적으로 ‘지역 간 교류의 모델 케이스’로 평가받고 있다.

교류 초부터 실시하고 있는 직원 상호 파견은 각각 20명을 넘겼으며, 상대 지역에서 언어, 행정 및 재정 제도를 습득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완수한 직원이, 귀임 후에는 다방면에서 ‘일한 교류의 가교’로 활약하고 있다.

이러한 교류뿐만 아니라, 두 자치 단체 및 민간 단체간의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돗토리현의 8개 시정(市町)이 한국의 시군(市郡)과 자매도시를 맺고 있으며, 한국과 자매결연을 맺은 시정촌(市町村) 수는 일본 내 최고를 자랑한다. 나아가 이 가운데 6곳이 강원도내의 시군과 자매도시를 체결하고 있어 두 지역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2017년 4월, 5개 교류지역(일본 돗토리현, 한국 강원도, 중국 지린성, 러시아 연해주, 몽골 투브드)이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에 합의했다.

돗토리현의 일한 교류를 지탱하는 국제 노선

돗토리현은 강원도와 교류를 지속하는 가운데, 국제노선 정비에도 힘써 왔다.

2001년, 요나고 기타로(米子鬼太郎) 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국제선 정기편(아시아나 항공)이 취항했고, 지난 10월 에어서울로 이관되었다. 올 4월에는 이용자 수 50만 명 돌파와 동시에, 이 노선을 응원하는 ‘에어서울 산인(山陰) 팬클럽’ 등록 회원 수가 6,000명을 돌파했다.

또, 2009년에는 사카이(境港) 항과 한국 동해항,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잇는 국제정기화물여객선(DBS 크루즈훼리)이 취항해, 올 4월에 이용자 수 20만 명을 돌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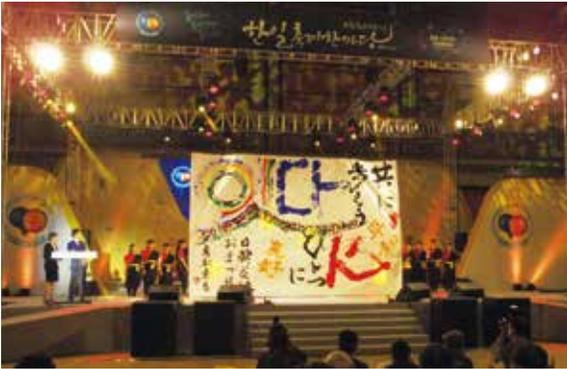
2017년 9월에는 돗토리 사구 코난 공항과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잇는 국제선 전세기(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가 운항을 시작했다.

이들 국제노선은 실로 이 지역 주민들에게 강원도를 비롯해, 한국과의 교류를 뒷받침하는 돌도 없는 자산이 되고 있다.

돗토리현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응원!

돗토리현은 일찌감치 강원도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지지해왔다. 강원도의 유치 활동이 값진 결실을 맺어, 내년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된 것은 돗토리 현민에게도 큰 기쁨이다. 따라서 돗토리현에서는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제까지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와 연계하여 강원도에서



한일축제한마당에서 돗토리현 청소년이 올림픽 응원 메시지를 선보였다.



이낙연 국무총리, 한일축제한마당에서 두 지역의 홍보부스를 시찰

개최된 '2018평창 동계올림픽 G-2년 페스티벌(2016년 2월)'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G-1년 페스티벌(2017년 2월)'에 돗토리현 문화공연단이 참가하는 등 협력해왔다. 그리고 내년 2월, 본 행사에서도 올림픽을 보기 위해 전세계에서 몰려드는 관람객들에게 돗토리현의 문화공연을 선보이며,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자 한다.

또,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축제한마당'에 돗토리현 청소년들이 서예 퍼포먼스를 통해, 앞으로 일한 양국에서 개최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선보였다. 아울러 강원도와 공동으로 홍보 부스를 설치해, 두 지역의 매력과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를 널리 홍보했다.

그리고, 올 10월에는 강원도와 협력해 요나고 기타로 공항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D-100일 기념 세리머니'를 개최했다. 이를 계기로 내년 3월까지 평창 동계올림픽 PR 패널전을 개최한다. 돗토리현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속

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널리 홍보할 생각이다.

돗토리현과 강원도, 앞으로의 교류

이처럼 두 지역은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거듭하며, 강한 연대를 구축해 왔다. 앞으로도 두 지역이 일한 양국의 상호 이해, 상호 발전의 촉진 및 교류 인구의 확대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역 간 교류 및 우호 관계를 계속 강화해 가고자 한다.

또, 드디어 내년 2월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원도와 협력해 가고자 한다.

(집필: 돗토리현, 협력: CLAIR, Seoul)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D-100일 기념 세리머니'를 개최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



2017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돗토리현 문화공연단이 관람객과 함께한다.



아키타 쌀, 미인, 온천 그리고 스키

아키타현 소개

아키타현(秋田県)은 수도 도쿄에서 거의 정북 방향으로 450km 떨어져 있으며, 베이징, 마드리드, 뉴욕 등 세계 대도시와 거의 같은 위도(북위 40도)에 위치해 있다. 총 면적은 11,637km²로 일본에서 여섯번째로 크며, 총 인구는 약 100만 명이다. 기후는 여름이 짧은 북방형으로 계절 구분이 확실한 것이 특징이다.

아름다운 자연은 물론 오노 고마치(小野小町, 헤이안 시대의 여류 시인)로 대표되는 '아키타 미인'이 유명하며, 일본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아키타 삼나무 숲', 맛있는 '아키타 쌀', 그리고 '아키타 술' 등 아키타의 자랑인 자원이 풍부하다.

온천의 고장 아키타

일본에서도 손에 꼽히는 온천 지역인 아키타현. 그 중에서도 인기 있는 곳은 다마가와(玉川) 온천과 온천마을인 뉴토온천향(乳頭温泉郷)이다. 다마가와 온천은 일본 전역에 알려진 명탕(名湯: 효험이 있다고 알려진 유명한 온천)으



로, 불치병을 고쳤다는 일화가 셀 수 없을 만큼 존재하는 일본 굴지의 치유온천이다. 용출량이 분당 9000리터로 단일 원천으로는 일본 최대를 자랑한다. 1.2ph의 강산성으로, 100% 원천수에 몸을 담그면 피부가 따끔따끔하다. 뉴토온천향은 비탕(秘湯)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쓰루노유(鶴の湯), 다에노유(妙乃湯), 가니바(蟹場) 온천, 오가마(大釜) 온천, 구로유(黒湯) 온천, 마고로쿠(孫六) 온천, '휴가촌(休暇村: 국립공원 안의 휴양 시설) 뉴토온천향'의 비탕, 명탕이 산재해 있는 온천 지역이다. 가을과 겨울, 단풍과 눈에 둘러싸여 비탕과 명탕을 즐길 수 있다.

아키타의 식문화

아키타현은 쌀의 고장이자 술의 고장이기도 하다. 사냥꾼들이 밥을 으깨 막대기에 감아 구워 먹은 데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기리탄포'. 이것과 히나이(比内: 아키타현 북부에 있는 정(町)) 토종닭, 우엉, 잎새버섯, 파, 미나리, 실 곤약



등을 간장 등의 조미료와 함께 육수에 넣고 끓이면 '기리탄포 나베'가 완성된다. 대롱모양의 쫄쫄득득한 기리탄포에 히나이 토종닭의 국물이 스며들어 입 속에서 살살 녹는데, 그 자체가 바로 아키타의 맛이다. 맛있는 술의 왕국 아키타현은 주조업(酒造業)의 역사가 길어, 창업한 지

100년이 넘는 양조장이 전체의 3분의 2인 25곳에 이른다. 아키타는 쌀의 고장답게 원료인 쌀의 확보가 쉬우며, 좁고 눈이 많은 겨울이 길어 물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에서도 청주를 빚는 데 최적의 환경이다. 해외에서 열리는 니혼슈 콘테스트에서도 아키타현의 술이 많은 상을 받아, 세계에 통하는 높은 품질을 증명하였으며 계속 발전하고 있다.





아키타 축제

아키타의 축제는 매년 8월 개최되는 아키타 간토 마쓰리(竿燈祭り)와 오마가리 하나비(大曲の花火)가 있다. 도호쿠(東北) 지방 3대 축제 중 하나로 손꼽히며, 일본 중요 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간토 마쓰리는 액을 막고, 목욕 재계로 부정(不淨)을 씻어내며,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로서 에도시대(江戸時代, 1603~1867)부터 계승되고 있다. 46개의 제등이 달린, 높이 12m에 무게가 50kg나 되는 거대한 간토(竿燈, 제등을 매단 대나무 장대)를 사시테(差し手, 간토를 조종하는 사람)가 손바닥이나 이마, 허리 등에 올려 자유자재로 조종하며, 하늘 높이 들어 올린다. 분위

기가 최고조에 이르는 밤, 빛나는 벼 이삭 같은 간토가 대로를 가득 메우며, 마치 하늘에서 은하수가 쏟아지는 듯한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한다. 일본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불꽃경기대회 ‘오마가리 하나비’. ‘매달 불꽃을 쏘아 올리는 도시’ 다이센시(大仙市)에서 100년 넘게 치러지고 있는 역사 깊은 불꽃대회로, 일본에서 선발된 일류 하나비시(花火師), 즉 불꽃 전문가들이 실력을 겨루며 쏘아 올린 수준 높은 불꽃 놀이 기술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대회의 절정으로는 ‘대회에서 제공한 불꽃’인 와이드 스타 마인(Wide Star Mine)으로 폭이 500m 이상에 이르는 거대한 불꽃이 쏘아 올려지며, 행사장의 열기는 최고조에 이른다. 인구 4만이 채 안 되는 다이센시 오마가리(大仙市 大曲)에 이 날만 70만 명이 모여, 빛과 소리의 합동 공연을 즐긴다.

매력적인 지역 열차

아키타현에는 리조트 시라카미, 아키타 내륙중단철도, 유리(由利)고원철도 등 매력적인 지역 열차가 있다.

리조트 시라카미는 총 연장 147.2km의 JR 고노선(五能線)으로 일본해 연안을 따라 시라카미 산지(白神山地)를 조망하며 달리는 인기 열차다. 넓고 개방적인 차창으로 펼쳐지는 세계자연유산을 바라보며, 일본해의 풍파가 만들어 내는 기암괴석에 놀라게 된다. 아키타 내륙중단철도는 다카스역(鷹巣駅)에서 가쿠노다테역(角館駅)까지 94.2km를 달경거리며 달리는 지역 노선으로, 애칭은 ‘아키타♡미인 라인’이다. 20개 터널을 지나며 322개 다리를 건넌다. 단풍철에는 활엽수인 붉은 단풍과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 있는 침엽수의 짙은 초록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마타기(マタギ, 사냥꾼 집단) 문화의 발상지 등, 모리요시(森吉) 산을 중심으로 ‘산의 리조트 열차’가 일본의 원초적 풍경으로 안내한다. 유리고원철도는 초카이(鳥海) 산을 배경으로 광활한 전원 풍경 속을 달리는 총연장 23km의 지역 철도 노선이다. 초카이산을 올려다 보며 선로 주변의 사계절 경치를 즐길 수 있다(‘마고코로 열차’는 1일 1회 왕복 운행한다).

(집필 : 아키타현 관광진흥과, 협력 : CLAIR, Seoul)



연가정

철학을 전공했지만 마술, 힙합, 운동 등 자신이 좋아하는 것 가운데, 가장 적성에 맞는 요리를 선택했다는 ‘연가정’의 연세현 셰프. 좋은 재료로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싶다는 그의 눈빛이 왠지 믿음직하게 느껴졌다.



‘연가정’하면 어딘가 포근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연가정’이라는 가게 이름은 어머니님 친구분이 ‘가정’이라는 단어에 ‘연’이라는 제 성을 따서 ‘연가정’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언제부터 일본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특히 ‘일본 가정 요리’를 메인으로 가게를 오픈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저는 원래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해야 하는 타입이기도 하고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빠릅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갑자기 마술이 배우고 싶어져서 마술도 배웠고, 여러 운동과 춤 등 하고 싶은 것을 하던 중, 요리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무엇이든 제대로 하는 가게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항상 기본에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육수는 우리는 과정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사실, 어떤 메뉴는 간장이나 설탕 맛이 강해서, 육수나 재료에 정성을 들이는 것이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맛’이라는 것은 얇은 층을 여러 개 겹쳐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층 하나 하나까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본 요리를 만들면서 보람을 느끼거나 어려웠던 적은 언제인가요.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는 제가 만든 요리를 누군가가 돈을 내고 사 먹는다는 점이 신기하기도 하고 보람찼습니다. 그리고 한 번 오신 손님이, 다음 번에는 부모님이나 자녀와 함께 오는 경우가 있는데, ‘내 가족에게도 먹일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인정받은 기분이 들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반면, 가게의 규모가 작다 보니, 재고의 보관이나 회전율 면에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일본 요리 관계자와 인터뷰를 해보면 ‘일본 본토의 맛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어느 정도 대중화를 위



해 현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일본 전통 방식대로 요리를 해도 맛있는 음식은 일본인이나 한국인 모두에게 똑같이 맛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본 현지의 맛을 내려고 합니다. 저 자신도 일본 요리를 먹었을 때 맛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욱 일본의 맛을 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단골 중에 항상 쇼가야키(돼지고기 생강구이)를 드시는 분이 계신데, 일본에서 먹던 맛이 난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최근, 일본 요리가 한국에서 더욱 인기를 얻고 있는데, 양국의 거리를 좁혀주는 일본 요리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요리는 맛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일본 요리는 맛도 맞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 점이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스이모노(맑은 장국) 같은 경우, 마지막에 유자 껍질을 갈아 넣어 유자 향을 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추가된 과정으로 계절감을 표현하는 섬세함이 좋습니다. 또한, 일본 요리는 재료 본연의 맛을 강조하는 점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일본의 정통 레시피를 기본으로 하되, 제 나름대로 약간 변형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작은 가게에서도 일본에서 먹어 본 제대로 된 일본 요리를 맛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리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먼저, 요리사는 생각보다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직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내 손만 움직일 수 있다면 정년이 없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만약, 요리사를 직업으로 하게 된다면 요리에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요리를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기본에 충실하자’는 초심을 잃지 않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나카무라 아카데미에서 요리를 배울 때, 선생님께서는 수업에서 쓰고 남은 자투리 재료를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챙겨두시고 어딘가에 활용하셨던 점이 인상적이었고, 여기서 요리를 대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을 꼭 이어가고자 합니다.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손동주 이사장 인터뷰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순수 민간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의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와 우호협력을 목적으로 1987년 11월에 설립되었으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습니다.

저희 협회는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인적교류, 문화교류, 교육교류 등 상호이해 프로그램 중심의 다양한 사업을 일본 측 교류단체와 적극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바탕을 둔 풀뿌리 교류를 통해, 양국 간 민간교류 네트워크의 구축과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창립30주년이라고 들었는데, 협회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부산한일교류협회가 설립되던 1987년을 전후한 시기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미묘한 갈등과 대립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와 역사적인 측면에서 양국 국민이 서로를 바라보는 감정은 지금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상호 간의 불신을 극복하고, 한국과 일본이 민간차원에서 순수하게 교류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해결책을 찾아 보고자, 양국 교류에 깊은 관심과 뜻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그 중심적 역할을 하신 분이 초대 회장을 역임한 고(故) 최성천 박사님입니다.

釜山韓日文化交流協會について簡単に紹介してください。

純粋な民間レベルでの韓国と日本の人的・文化交流による相互理解と友好協力を目的として1987年11月に創立され、今年30周年を迎えることになりました。

当協会は釜山地域を根拠地にして日本との人的交流、文化交流、教育交流など相互理解プログラムを中心とした様々な事業を日本側の交流団体との積極的な協力関係の中で持続的に展開しており、このような活動をベースにして草の根の交流を続けていながら、日韓間の民間交流ネットワークの構築と地域社会への貢献を目標として活動しています。

今年で創立30周年と伺いましたが、協회를設立したきっかけは何でしょうか。また、どのような事業を行っていますか。

釜山韓日文化交流協會が設立された1987年を前後した時期は韓国と日本の間には微妙な葛藤と対立があったのも事実です。政治と歴史的な面で日韓の国民がお互いを見る時の感情は今とは比べられない程でした。

相互の不信を乗り越え、民間レベルで純粋に韓国と日本の交流を実践できる方法と解決策を模索するため、両国交流に深い関心と志を持った人々が集まって設立されました。当時、誰よりも情熱的に中心的な役割を果たしたのは、初代会長であった故・崔性珊氏でした。

設立以来、青少年と大学生を中心に訪日・訪韓ホームステイ交流事業や講演会、展示会、舞台公演などの事業を実施して

설립 이후, 청소년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방일·방한 홈스테이 교류사업과 강연회, 전시회, 무대공연 등의 사업을 펼쳐 왔으며, 일본대중문화의 개방과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전후로,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일본문화 이해와 한국문화의 일본 전파를 위한 문화교류 사업에 역점을 두고, 폭넓은 세대와 다양한 계층이 누릴 수 있는 교류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국제교류기금과 공동으로 1년에 2회 실시하는 JLPT 일본어능력시험을 주최하는 단체로서 부산, 대구를 비롯한 경상남북도 지역의 시험 관리 업무도 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청년 이수현 모임 등의 인적교류와 문화교류 등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듯 2001년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일본인을 구하려다 안타깝게 희생된 의인 이수현 님이 바로 부산 출신입니다. 그가 보여준 국경을 초월한 인간애와 숭고한 희생정신은 지금도 많은 분들께 큰 감동으로 남아 있지만,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들의 뇌리에서 점점 잊혀져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협회는 의인 이수현 님의 선행이 더 많은 분들께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2010년부터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모임인 ‘아름다운 청년 이수현 모임’을 기획해, 매년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하여 시민들을 찾아뵙고 있는데, 올해는 이수현 님의 모교인 내성고등학교(금정구 서동로 소재) 앞 길에 ‘의인 이수현길’이라는 명예도로명을 붙이고자 서명 캠페인을 펼쳤고, 관할구청인

키ましたが、日本大衆文化が解放され、「2002年日韓ワールドカップ」共催を前後により多くの市民たちが日本文化を理解し、韓国文化を日本へ伝えられる文化交流事業に重点を置き、幅広い世代と様々な階層が楽しめる交流事業を展開しています。なお、国際交流基金と共同で年に2回実施されるJLPT日本語能力試験を主催する団体として、釜山と大邱を始めとする慶尚道の試験管理業務も担当しています。

特に、「美しき青年李秀賢(イ・スヒョン)モイム」など人的交流や文化交流などに重点を置いていますが、具体的にどのような交流が行われていますか。

皆様もご存じのように、2001年に東京の新大久保駅で線路上に落ちた日本人を助けようとして犠牲になった義人・李秀賢氏の出身が釜山です。彼が見せてくれた国境を越えた人間愛と崇高な犠牲精神は今でも多くの人々に感動を与え続けていますが、時代が変わって歳月が流れる中で私たちの記憶から消えていくのを残念に思いました。当協会は、義人・李秀賢氏の善行を多くの人々に記憶してほしいという思いから2010年より韓国と日本の大学生の集まりである「美しき青年李秀賢モイム(略称:アイモ)」を企画し、毎年、多様で意義深い行事をもって市民のもとを訪れていますが、今年はその母校である萊城高校(金井区書洞路)周辺の道路を「義人・李秀賢路」という名誉道路にするための署名キャンペーンを行い、管轄役場である金井区にお願いした結果、先月、名誉道路として採択されたそうです。近いうちに、皆様も「義人・李秀賢路」とふれあうことが出来るでしょう。

「美しき青年李秀賢モイム」事業を例に挙げましたが、当協会が力点を置いている事業は「日韓交流の人材育成」というスローガ





금정구에 청원한 결과 명예도로명으로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곧 여러분들께서도 '의인 이수현길'을 직접 만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청년 이수현 모임'이라는 사업을 예로 말씀드렸지만, 당 협회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한국과 일본의 교류 인재육성'이라는 기치 아래, 미래세대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바람직한 양국 관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그들이 펼쳐 나갈 한국과 일본의 미래지향적 공동번영이라는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가 앞장서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양국 간 교류의 현장을 지켜보면서 보람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느낀 적은 언제인가요.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았지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니다. 양국이 정치적, 역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저희도 분명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길만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민간교류'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보람을 느낀 기억은 수없이 많지만, 매 순간의 공통점은 당 협회의 설립이념인 '민간교류'라는 순수한 뜻을 믿고 함께 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지면을 빌려, 협력해 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는?

지나온 30년을 되돌아 보고, 미래의 30년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할 전환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의 양국 교류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함에 있어, 재일교포사회에 한국의 정신과 변화된 인식을 심어주는 등 신시대에 걸맞은 사업을 개발, 추진하려 합니다.

부산문화교류협회는 '민간교류로 밝은 미래!'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양국 교류의 패러다임을 목표로 한걸음씩 나아가려 합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당 협회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ンの下で未来の世代により多くの投資をすることあります。青年たちに望ましい両国関係というものを認識してもらい、彼らが切り開いていく韓国と日本の未来志向の共同繁栄という舞台上で、彼ら自身が主人公として活躍できるように釜山韓日文化交流協會が先頭で努力するべきではないでしょうか。

日韓交流の現場でやりがいを感じたり, 困難を感じた時はいつですか。

今年で30周年を迎えましたが, 今日に至るまで当協會も良いことばかり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両国が政治的・歴史的な面で対立する時は, 私たちも確かに苦しい時期を過ごしました。しかし, そのような状況の中でも私たちが一本道を歩んで来られたのは「民間交流」という目標があったためでした。人と人との出会いに理由など必要でしょうか。

やりがいを感じた記憶は数え切れないほどありますが, 事業全ての共通点は當協會の設立理念である「民間交流」という純粋な意味を信じて, 共に歩んでくださった多くの方々がいらっしゃったからこそ可能だったことではないかと思ひます。この場をお借りして當協會にご協力を頂いた関係者の皆様にお礼申し上げます。

今後の計画や目標は。

過去30年を振り返って, 未来の30年をデザインするターニングポイントに至ったと言えるでしょう。これからの両国交流に対する新しい方向性を定めるにあたって, 在日韓国人社会に韓国の精神と變化した認識を伝えていくなど新時代に相応しい事業を開発して進めていきたいと思ひます。

釜山文化交流協會は「民間交流で明るい未来を」というキャッチフレーズで, 未来を見すえた新たな両国交流のパラダイムを目指しながら頑張りたいと思ひます。

読者の皆様の當協會へのさらなるご関心とご声援をお願いいた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017 히라가나 가타카나 디자인 콘테스트(가나콘) 전시회

한국의 중학생과 고등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본어 문자(히라가나, 가타카나)를 모티브로 창작한 디자인 콘테스트가 개최되어, 전국에서 약 4,400점이 응모했으며, 이 가운데 디자인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입상한 36점을 전시한다. 입장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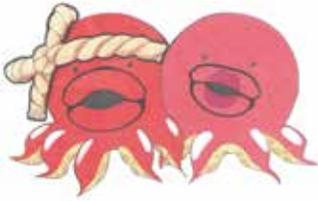
기간 12월 8일(금)~14일(목) 10:00~17:30(주말 휴관)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실크갤러리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후원 돗토리현, 아키타현, ㈜시사일본어학원, INPAINTER GLOBAL, 일본자치제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일본어저널, 한국일본어교육연구회, ㈜모리사와코리아, 기타큐슈 공항

문의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가나콘 담당 02-397-2827



대상 강승희



최우수상 김유신



최우수상 서유진



우수상 지민경

동행전(Go with 2017)

한국과 일본 미용 분야의 아트 작품을 전시하는 일한공동작품전인 '동행전'이 개최된다. 미용을 전공한 30여 명의 작가가 머리, 메이크업, 보디 페인팅, 네일 아트, 특수 분장 등의 작품 전시를 통해, 양국의 미용 문화를 공유하는 동시에 교류의 자리를 마련한다. 입장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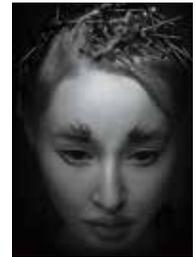
일시 12월 19일(화)~22일(금) 10:00~17:30(주말 휴관)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실크갤러리

주최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뷰티디자인전공 동문회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건국대학교 총동문회, 대한뷰티콘텐츠학회, (사)한국전통문화연구원

문의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뷰티디자인전공 동문회 010-7244-5374



일본 서적 소개

너의 취장을 먹고 싶어

스미노 요루 지음 | 양운옥 옮김 | 소미미디어



스미노 요루의 첫 소설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소녀와 함께 한 어느 소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요루노 야스미'라는 필명으로 소설 투고 웹사이트(소설가가 되자)에 원고를 올리고 큰 주목을 받으며 일본 문단에 등장하게 된다.

자의적인 은둔형 외톨이 남학생 '나는 우연히 초공정 인기 만점 동급생인 사쿠라의 <공병문고>를 발견하고 비밀을 공유하면서 그녀와 잠정적인 친구 계약을 맺는다. 일본의 각종 도서 관련 집계에서 1, 2위를 기록했다. 소설은 영화로도 제작되어, 2017년 10월 25일 한국에서도 개봉되었다.

11월 일본소설 베스트셀러

순위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1	나미야 점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2	너의 취장을 먹고 싶어(노블판)	스미노 요루	소미미디어
3	너의 취장을 먹고 싶어	스미노 요루	소미미디어
4	기사단장 죽이기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동네
5	노르웨이의 숲	무라카미 하루키	민음사
6	기면산장 살인사건	히가시노 게이고	재인
7	인간 실격	다자이 오사무	민음사
8	용의자 X의 현신	히가시노 게이고	재인
9	또다시 같은 꿈을 꾸었어	스미노 요루	소미미디어
10	초바키 문구점	오가와 이토	예담
11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	기타가와 예미	늘
12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나나츠키 다카후미	영상출판미디어
13	위험한 비너스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14	라플라스의 마녀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15	또다시 같은 꿈을 꾸었어	스미노 요루	소미미디어
16	기린의 날개	히가시노 게이고	재인
17	낙하하는 자네	에쿠니 가오리	소담출판사
18	꿀벌과 천둥	운다 리쿠	현대문학
19	너의 이름은.	신카이 마코토	대원씨아이
20	끝난 사람	우치다테 마키코	한스미디어

(제공 : 교보문고)



2017 순천 JAPAN WEEK를 마치고

11월 1일(수)부터 11일(토)까지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열린 '2017 순천 JAPAN WEEK'가 11일 동안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번 JAPAN WEEK는 11일 동안 순천시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8,300여 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 일본의 다양한 문화를 접했다.

이번 JAPAN WEEK의 첫 행사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의 강연회로 '오늘날의 일한관계와 문화교류의 역할'이라는 테마로 진행되었다. 300여 명의 학생과 시민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강연회를 경청했고, 강연이 끝난 후에는 많은 질문으로 관심을 나타냈다. 또, 순천대학교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영화홍보전단을 비교 감상하는 '한일영화홍보전단 비교전'과 일본유학·워킹홀리데이 설명회, 일본취업설명회도 열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전통미술 우키요에 전시회와 일본의 생활풍습전이 열린 순천시문화건강센터 전시장에는 우키요에를 제작하는 과정을 맞볼 수 있는 스탬프 체험을 비롯해, 일본의 난방기구인 고타쓰, 전통의상인 유카타, 핫피, 그리고 놀이도구 등을 체험하는 코너가 마련되어 큰 인기를 끌었다.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이자 평생 어린이의 순진무구한 모습을 표현한 화가 고(故) 이와사키 치히로 작가의 작품전 또한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전시장 특설코너에서는 에도시대로부터 내



Cool Japan 리포터로 선발된 대학생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나가미네 주한일본대사



일본 음악 공연팀 'ZI-PANG' & 'sakura project' 합동공연을 성공리에 마치고



순천 시민 앞에서 아메자이쿠(사탕공예) 제작 과정을 선보이는 미즈키 다카히로 씨

러운 일본 전통공예인 '아메자이쿠(사탕공예) 실연회'가 실시되었다. 사탕공예가 미즈키 씨는 어린이들의 즉흥 요청을 받아 사자, 용, 돌고래, 공작새 등 다양한 동물들을 순식간에 만들어내 관람객들의 탄성을 이끌어냈다. 또, 같은 장소인 평생학습관에서 두 가지 워크숍이 열렸다. 먼저, 기모노 기쓰케 전문가인 다카기시 치카코 씨의 지도로 '기모노 워크숍'이, 에테가미 강사 후쿠마 에리코씨의 지도로 '에테가미 워크숍'이 열렸으며, 교실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문화지만 열정적인 모습으로 워크숍에 임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공연으로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일본의 북 연주가 하야시다 히로유키 씨가 이끄는 'ZI-PANG'와 동서양의 앙상블 'sakura project'의 합동공연이 순천만습지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sakura project'는 일본전통음악과 오리지널 곡, 익숙한 영화음악 등을 연주해 큰 갈채를 받았으며, 'ZI-PANG'는 일본을 대표하는 북 공연팀다운

다이내믹하고 현란한 바치(북 스틱) 놀림으로 순천만갈대축제를 찾은 많은 관객을 매료시켰다. 일본음악공연에 이은 두 번째 공연은 '다이도게(大道芸)' 공연이었다.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의 'JENESYS 2017' 일한문화교류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다이도게 공연은 요요 및 스테킹 세계 챔피언을 포함해 일본 전통 마술인 와즈마, 코믹 퍼포먼스, 아크로바트, 저글링, 풍선아트 등 대규모 공연단이 방한하여 공연과 워크숍을 실시했다. 순천시내 고등학교와 대학교, 순천시문화건강센터 등에서 총 5차례 공연을 실시, 총 1500여 명의 관객이 모이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번 '순천 JAPAN WEEK'에 참가했던 순천시민들은 JAPAN WEEK의 모든 행사가 흥미롭고 신선했다는 의견을 주었다. 또,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없는 순천과 같은 지방도시에서,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의 일본문화를 소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남겼다.



기모노 강사 다카기시 치카코 씨의 지도로 유카타를 입어 보는 순천 시민들



에테가미 강사 후쿠마 에리코 씨와 함께 워크숍을 마치고

조선통신사와 함께 걸어볼까? 쓰시마에서 후쿠오카까지

박혜림 · 일본문화원 리포터(3기)

약500년 전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된 사절을 ‘조선통신사’라고 한다. ‘통신’이란 ‘신의’를 나눈다는 의미로, 그 기록이 일본에 제물관으로 갔던 신유한(申維翰)의 해유록(海游錄)에 자세히 나와 있다. 그 발자취를 함께 걸어보자.



조선통신사의 첫 여정은 쓰시마(対馬)인데, 통신사를 맞이하며 백성들이 주의할 사항을 적은 계시판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통신사의 배가 지날 때는 이를 우선할 것, 풍습이 달라도 비난하거나 제멋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되며, 분쟁을 일으키지 말 것 등이다. “그들의 풍습이 달라도 비난하거나 기분 내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서 일본인의 배려심이 느껴진다. 현재, 일본이 외국인들에게 친절한 나라로 비쳐지는 것도 이 무렵부터가 아닐까.

쓰시마에 도착한 후, 조선통신사 일행은 세이잔지(西山寺)라는 절에 머무르는데, 일본 가옥을 보고 흥미로워하는 반응이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다.



“모두 겹으로 된 띠 자리를 깔았는데, 안으로 두텁게 짜고 가에 선을 둘러 크기가 일정했다. 문에는 지도리와 자물쇠를 설치하지 않았고, 매양 한 면마다 큰 문짝 세 개를 세워 서로 밀고 당겨 열고 닫게 하였는데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다.”

(해유록 중)

일본의 다다미방과 자물쇠가 없는 문을 보고 신기해 하는 신유한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본격적으로 일본 생활을 시작한 조선통신사 일행은 첫 식사로 스키야키(すき焼き)를 먹는다. 요즘은 한국에서도 쉽게 먹어볼 수 있지만, 당시 처음 맛본 스키야키에 대한 감상이다.

“우리나라의 등숙과 같은 것이다. 옛날에 일본인들이 삼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던 중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생각하다가, 각자가 가진 재료를 한 그릇에 집어넣고 삼목으로 불을 때어 달았는데 그 맛이 매우 좋았고 스키야키(すき焼き)라 했다.”

(해유록 중)

대표적인 일본음식으로 인기 있는 스키야키의 유래를 알 수 있는 대목으로, 서로 재료를 나누어 먹는 일본의 정감 있는 문화가 머릿속에 그려진다.

쓰시마를 떠난 일행은 후쿠오카의 아이노시마(藍島)에 정박한다. 아이노시마는 쓰시마에서 일본대륙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최근 통신사와 관련된 많은 유물이 나온 곳으로 조선통신사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방파제를 만들었다는 기록도 있다. 아이노시마의 비석에는 ‘조선통신사의 섬, 성신교린’ 이라고 적혀 있다.



통신사의 숙소 세이잔지



아이노시마



도모노우라항



조선통신사의 시문이 남아 있는 도모노우라의 다이초로

(사진제공 : 부산문화재단)

성신교린이라는 뜻은 ‘서로 속이지 않고, 진심으로 교류한다’는 뜻이다. 현재, 아이노시마는 고양이 섬으로 유명한데, 그 당시에도 고양이가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고양이와 함께하는 조선 선비의 모습을 생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아이노시마 이 후, 조선통신사는 히로시마현(広島県) 후쿠야마시(福山市)의 남쪽인 도모노우라(鞆の浦)로 향한다. 도모노우라는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 감독의 애니메이션 ‘벼랑 위의 포뇨’의 배경지로도 유명하다. 지금까지도 많은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을 정도로 바다 풍경이 아름다워서 조선통신사 사절단이 극찬한 곳이기도 하다. 도모노우라는 미야자키 하야오도 사랑한 곳으로 개발 반대 운동까지 펼쳤다고 하니,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이 간다. 도모노우라에 가면, 벼랑 위의 포뇨 기념품점과 아기자기한 건물도 있지만, 조선통신사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후쿠젠지(福禪寺)에 가보자. 후쿠젠지는 도모노우

라에서 조선통신사의 숙소였다. 여기서 바라본 절경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 남아 있다. 1748년 제10차 조선통신사로 간 홍경해는 경치에 감탄하여 다이초로(対潮楼)라는 목각 편액까지 세울 정도로 많은 조선 문인들이 이곳의 절경에 빠져들었다. 1711년 종사관이었던 이방언의 글씨로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승지’라고 적혀 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모두가 혀를 내둘렀을까. 안 보고는 못 배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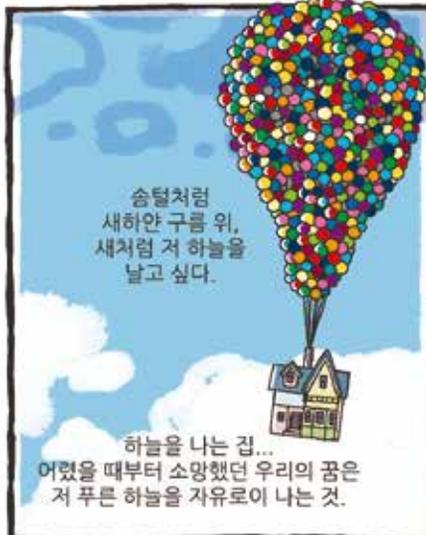
지금까지 쓰시마부터 후쿠오카 그리고 히로시마의 두 섬을 살펴보았다. 단지, 한국에서 가까운 일본의 쓰시마나 후쿠오카로 여행을 간다는 생각보다 ‘조선통신사가 다녀간 길’을 테마로 길을 떠나 보는 것은 어떨까.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여행만으로는 왠지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을 수직저속 추풍을 유학 여행기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遊學)보고서

感動の5日間



솨털처럼 새하얀 구름 위, 새처럼 저 하늘을 날고 싶다.

하늘을 나는 집... 어렸을 때부터 소망했던 우리의 꿈은 저 푸른 하늘을 자유로이 나는 것.

사가(佐賀)는 규슈지역 7개 현(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현이지만 크고 작은 축제와 볼거리가 풍성한 곳이다. 그 중에서도 이 지면을 빌어 꼭 소개하고 싶은 것이 198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23회를 맞이한 아시아 최대 규모 열기구 축제인 '사가 인터내셔널 발룬 페스타'.

그리고 2016년 10월 1일에 문을 연 일본 최초의 열기구 박물관인 '사가 발룬 뮤지엄'.



한마디로 열기구의 도시 사가. 건물부터가 불링불링~

뮤지엄 내부에 들어가면 열기구의 역사와 원리 등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고 열기구 조종사가 된 듯한 기분을 맛볼 수 있는 풍선비행 시뮬레이터가 있다.

그 실험의 성공으로 사람이 탈 수 있는 열기구를 만들기 시작했고 같은 해 가을 인류 최초로 유인(有人)비행에 성공했다고 한다.



와우~ 파란 하늘을 알록달록 오색풍선으로 수놓았네~ 정말 환상적이야~

먼저 세계 열기구의 역사를 살펴볼까요? 열기구는 1783년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때 닭과 오리과 양을 태운 열기구의 공개실험으로 시작되었어요.

280인치 대형 스크린의 시어터룸에서 감상하는 '사가 인터내셔널 발룬 페스타'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공기보다 가볍다는 과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크고 둥근 풍선 형태에 데운 공기를 모아서 하늘에 띄우는 것이 열기구랍니다.

*꿀 팁 하나. 열기구의 비행은 한달이 아닌, 해 뜬 후와 해지기 전에 행해진다는 사실~



일본 기구연맹은 열기구나 비행선을 포함한 항공 스포츠 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지요.

그 후 후쿠오카현에서 개최되었던 행사장은 지금의 사가로 이동되었고 '1980 발룬 페스타 인 규슈'가 개최되었다. 1984년부터는 국제대회가 되어 '사가 인터내셔널 발룬 페스타'로 대회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동심폭발, 백발의 어린신들을 동심으로 하하호호~ 돌려보내는 곳.

내년에도 개최 될 사가 인터내셔널 발룬 페스타에 꼭 참석해 현장의 생동감에 압도 당하고 싶어지네.

생각만으로도 썩나오~♪